



담양 용오름마을



장성 편백숲치유마을



광양 하조마을

산촌생태마을로 느긋한 여행 떠나볼까

여행하기 좋은 산촌마을 10곳
담양 용오름마을 등 전남 3곳
산림청 홈페이지 무료 책자 제공

🔍 체험 프로그램	👁️ 주변 관광정보	🍴 먹거리
담양 야생화·동물·농사체험	담양 용홍사, 죽녹원, 금성산성	담양 떡갈비, 대나무 통밥, 죽순
장성 편백숲 치유, 숲 해설 체험	장성 황룡강 생태공원, 백양사	장성 삼채(세가지 맛 채소)
광양 해달별 관측, 반딧불이 관찰	광양 백운산 휴양림, 성불계곡	광양 불고기, 섬진강 재첩요리

산나무열매·청미래 덩굴·고사리 등이 유명한 담양군 월산면 용오름 마을은 전남의 대표적 산촌마을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광양시 봉강면 하조마을은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과 반딧불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장성군 서삼면 죽령산 편백숲치유마을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장소로 인기가 높다.

담양 용오름마을, 광양 하조마을, 장성 편백숲치유마을이 산림청이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 10선'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6개 도(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중 강원도와 함께 가장 많은 마을이 뽑혔다.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산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하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 10곳을 선정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용오름마을 등 전남 3개 마을을 비롯한 ▲경기도 연천군 고대산산촌마을 ▲강원도 강릉시 솔내마을·인제군 달빛소리마을·정선군 곤드레한치마을 ▲충북 제천시 산채건강마을 ▲전북 진안군 세동리 옹지골마을 ▲경남 하동군 의신배어밭리 등이다.

선정된 마을은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교

육·휴양·체험 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다.

담양 용오름마을은 자연생태 체험과 야생화를 이용한 보존화(Preserved)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양 하조마을에서는 해달별 관측, 반딧불이 생태관찰, 아로마 향초&비누만들기, 훈증테라피, 매화비즈공예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성 편백숲치유마을은 편백숲 치유, 숲 해설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강원도 강릉시 솔내마을은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오대산 중턱에 위치한

마을로 이곳에서는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산채류를 활용해 산채 요리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민요 '정선 아리랑'에 나오는 강원도 정선군 곤드레한치마을은 웰빙(장·술·담·고기)에서 웰다잉(임종체험)까지 독특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송어잡기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에 자리한 고대산 산촌생태마을은 고대산의 청정자연과 자연학교 및 별자리 이야기, 미션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남 하동군 지리산 자락 의신배어밭리

지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만날 수 있다.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화 생태체험, 서산대사 옛길 걷기 등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이번에 제작한 화보집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관광서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으로 둘러싸인 산촌생태마을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의 중심지이자 전통 문화와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이라며 "산촌의 고유한 자원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각 마을이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4개 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소똥구리가 돌아온다고? 멸종위기 20종 복원 추진



소똥을 동그랗게 말아 굴리는 소똥구리(멸종위기생물 II급·사진)는 농촌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친숙한 곤충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사료와 항생제를 먹인 소를 키우면서 개체수가 급감해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꽃사슴'으로 불리던 대륙사슴(멸종위기 I 급)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조선시대까지 왕에게 녹용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됐으나, 일제강점기 때 무분별한 남획으로 1940년대를 기점으로 절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가 소똥구리·대륙사슴을 비롯한 멸종위기 20종 복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상북도 영양군)가 지난해 8월에 준공돼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복원센터는 부지면적 약 255만㎡, 건물 연면적 1만6029㎡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시설이다. 내부에는 대륙사슴·스라소니 같은 대형 야생동물, 조류의 서식환경을 고려해 실내·외 사육장, 방사장, 적응훈련장, 맹금류 활강연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증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실현시설도 운영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에 놓인 한반도의 야생생물을 보전·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핵심 연구 시설로, 2030년까지 4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도입하고 이 중 20종을 복원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5명 추가...459명으로 늘어

천식 피해,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신청 간소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열고 폐질환·태아 피해와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 중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 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었고, 폐손상 피해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피해는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

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태아 피해 14명·천식 피해 29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천식에 대해 신규 피해신청을

할 때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없이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점수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폐손상과와는 달리 천식은 사용 약제와 천식 유발 검사 결과 등을 통한 임상적인 진단이 가능해 새로 CT를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천식 피해 인정자의 피해등급 기준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 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

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심의해 10명에 대해서는 매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 장애 7명은 1인당 96만원, 중등장애 1명은 64만원, 경도장애 2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점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손상과 관련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생태원 모니터링단 모집

국립생태원이 '계절 행사 모니터링단'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은 생태원이 계절 행사를 진행할 때 1박2일 동안 머물며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시 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활동을 한다. 또 계절 행사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국립생태원 블로그(blog.nie.re.kr) 등에서 홍보활동을 펼친다.

대상은 유아 또는 초등학교생이 포함된 가족으로 국립생태원 홈페이지(www.nie.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lybong@nie.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더스트 크리너

백필터 / 카트리지가 / 싸이클론 형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제동) Tel.063-835-4771